



잉글랜드 루니



포르투갈 호날두

이탈리아 부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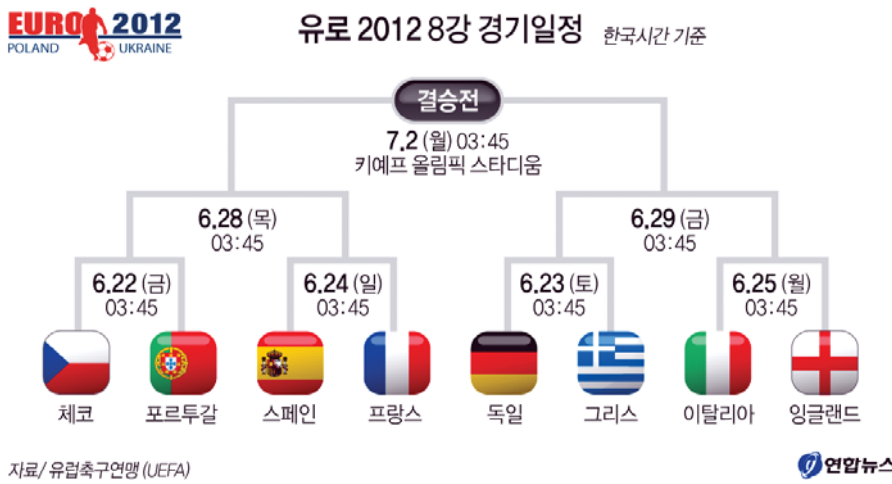


독일 슈바인슈타이거 (왼쪽)



/유재관기자 jkyou@kwangjuju.co.kr

## “널 잡아야 내가 산다” 진검승부



자료/ 유럽축구연맹(UEFA)

연합뉴스

### 유로 2012 8강전 ... ‘빅매치’ 풍성 내일 새벽 체코-포르투갈 첫 대결



스페인 토레스

1-1로 비긴 뒤 체코에 1-2로 발목이 잡혔지만 최종전에서 1-0. 선두 러시아를 잡았다. 득점 3점에 실점 3점. 살피기디스와 즈카스, 카라구니스가 각각 1골씩을 기록하고 있다.

독일의 키 플레이어는 바이에른 뮌헨의 듀오 슈바인슈타이거와 고메즈. 왕성한 활동량과 날카로운 중거리 슈트, 수비력, 패스력 등 어느 하나 빠지는 것 없는 슈바인슈타이거는 독일전차의 키를 쥔 기관사다. 고메즈는 클로제의 뒤를 잇는 독일 축구의 새 골잡이. 맞수 포르투갈과 네덜란드를 상대로 3골을 뽑았다. 그리스가 독일을 이기려면 이 준비된 스트라이커 고메즈를 막을 방법부터 찾아야 할 것이다.

그리스의 영웅은 ‘영원한 캡틴’ 카라구니스. 중원의 지휘자로 공수를 조율하고 찬스마다 해설사의 본능을 보여준다. 수비축구 그리스에 자랑하는 최강 방패 파파도풀로스도 눈여겨 보자. 강력한 대인마크로 뒷마당을 책임지는 터프가이에다가 세트 피스 상황에서는 위협적인 공격 가담으로 골잡이 골을 터뜨리는 재주꾼이다.

◇스페인 vs 프랑스 (24일 일 오전 3시 45분)

스페인 2승1무 C조 1위. 첫 경기에서의 외로 고전 끝에 이탈리아와 1-1로 비긴 뒤 아일랜드를 4-0, 크로아티아를 1-0 차례로 제압했다. 득점 6점에 실점은 단 1점. 토레스와 파브레가스가 2골씩 넣고 실바와 나바스가 1골씩을 기록했다.

프랑스는 마지막 경기에서 스웨덴에 0-2로 일격을 당해 1승1무1패로 어렵게 8강에 올랐다. 첫 경기에서 잉글랜드와 1-1로 비기고 우크라이나에 2-0으로 이겼다. 득점 3점에 실점도 3점. 나스리와 메네, 카바예가 골을 기록했다.

스페인 골키퍼 카시야에서부터 최전방 토레스까지 모두가 주목할 선수. 특히 사비와 이니에스타는 스페인의 패스게임과 점유율 축구를 이끌어가는 두 개의 심장이다. 자타가 공인하는 세계최강. 우승후보 0순위 스페인에도 약점은 있다. 지난번 공격위주의 플레이를 펼치다 게임이 안 풀리면 역습 한방에 무너지는 경우가 가끔 있다.

프랑스의 자신은 나스리의 빠른 발과 벤제마의 머리. 나스리는 화려한 드리블과 빠른 패스가 특기. 영국과의 경기에서는 멋진 동점골까지 뽑아냈다. 원톱 벤제마의 조별

잉글랜드와 프랑스가 D조 최종전에서 8강 대열에 마지막으로 합류했다. 강력한 우승후보 네덜란드가 탈락했지만 그래도 대부분 올라 올 팀들이 올라왔다. 이제부터는 지면 끝나는 외나무다리 싸움. 점점 더 흥미로워지는 유로 2012. 8강 진출 팀들의 전력과 주목할 선수들을 살펴본다.

◇체코 vs 포르투갈 (22일 금오전 3시 45분)

체코의 조별리그 성적은 2승 1패. 득점 4점에 실점 5점. 실점이 더 많다. 첫 경기에서 러시아 자코예프에 2골을 내주고 1-4로 대패. 충격에 흔들렸지만 그리스를 2-1, 폴란드를 1-0으로 꺾고 승점 6점을 획득, A조 1위로 8강에 올랐다. 득점은 필라리와 이라체크가 각각 2골씩 기록했다.

포르투갈은 2승 1패로 B조 2위. 득점 5점에 실점 4점이다. 독일에 0-1로 지고 나서 덴마크를 3-2, 강호 네덜란드를 2-1로 꺾었다. 호날두가 2골, 페페 포스티 바레라가 각각 1골씩 넣었다.

주목할 선수는 당연히 온몸이 무기인 슈퍼스타 호날두. 초반 2경기 부진으로 ‘새가슴’이라 비난 받았지만 네덜란드전 2골로 화려하게 부활했다. 호날두는 “우리는 죽음의 조를 무사히 통과했다. 체코의 경기력을 감안하면 쉽지 않은 경기가 될 것이지만 이기지 못할 상대는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강한 자신감을 내비쳤다. 나니와 포스티가도 눈여겨 볼 선수다.

체코의 해결사는 이라체크. 필요할 때마다 결정적인 한방으로 팀을 8강에 올려놓았다. 뛰어난 위치선정과 왕성한 체력으로 8강전 활약이 기대되는 선수다. 아킬레스건 부상을 당한 게임메이커 로시츠키의 공백은 아쉬운 부분.

◇독일 vs 그리스 (23일 토 오전 3시 45분)

독일은 3전 전승으로 ‘죽음의 B’조를 통과했다. 포르투갈 1-0, 네덜란드 2-1, 덴마크를 2-1로 차례로 꺾었다. 고메즈가 3골로 득점 선수를 달리고 있고 포돌스키와 벤더가 각각 1골. 2실점에 그친 수비도 탄탄하다.

그리스. 이보다 끈질긴 팀이 있을까? 1승1무1패로 승점 4점에 그쳤지만 승자승 규정에 따라 골득실에 앞선 러시아를 끌어내리고 8강에 오른 기적의 팀. 폴란드와

리그 활약은 나쁘지 않은 편이다. 아직 풀이 터지지 않았지만 프랑스 팬들은 결정적인 순간에 그의 머리가 빛날 것이라 믿고 있다. 원어 리베리의 부진은 다소 의외.

◇이탈리아 vs 잉글랜드 (25일 월 오전 3시 45분)

이탈리아는 1승 2무로 조별리그를 간신히 통과했다. 스페인과 크로아티아와 각각 1-1로 비기고 마지막 경기에서 아일랜드에 2-0 승리를 거뒀다. 팀 색깔답게 이번에도 무패. 득점 4점에 실점은 2점. 디나탈레 피를로 카사노 발로텔라가 각각 1골씩 넣었다.

잉글랜드는 2승 1무. 득점 5점에 실점 3점이다. 루니 등 주전 선수들이 초반에 출전하지 못해 에를 대운 것에 비하면 팬층은 성적이다. 프랑스와 1-1 무승부, 스웨덴을 3-2, 우크라이나를 1-0으로 이겼다. 득점은 레스콧 캐롤 윌콧 윌버 루니가 각각 1골.

터프기로 올라왔어도 아주리 군단의 꿈이 8강에 머물 수는 없는 일. 목표는 당연히 우승이다. 이탈리아의 중심은 ‘회춘’한 큰형님 피를로. 스페인전에서 디나탈레의 골을 도운 길 패스, 크로아티아를 울린 명품 프리킥 골, 아일랜드전 카사노의 헤딩골을 이끈 코너킥. 이탈리아의 모든 골은 피를로로 통한다. ‘악마의 재능’을 가졌다는 카사노와 ‘악동’ 발로텔라 콤비, ‘거미손’ 골키퍼 부폰도 안 빠지면 서운하다.

잉글랜드는 루니의 복귀가 가장 반갑다. 오랜 공백으로 경기 감각이 무뎠던 루니였지만 스웨덴과의 마지막 경기에서 헤딩 결승골까지 뽑아 컨디션 이상무. ‘중원 사령관’ 제라드의 활약은 언제나 관심거리다. ‘국내용’이라는 비난을 듣지만 이번 대회에선 정확한 토포스로 잉글랜드의 역습을 주도하고 있다. 현재 도움 부문 1위. 자신과 동료들의 기량을 얼마나 극대화하느냐가 과제다.

### Hole in one and Dynasty Zone EVENT

기간 | 2012년 6월부터 ~ 종료시 까지  
 내용 | 지정출입권 및 다이내스티존 성공시 혜택  
 대상 | 주중 내장팀에 한함

**Hole in one**

임페리얼	7번홀	● 혜택
마게스티	12번홀	팀 전원 그린피 면제 (개별소비세, 카트비 별도)
펠리스	20번홀	

**Dynasty Zone**

펠리스	27번홀	● 혜택
		팀 전원 300cc 생맥주 제공

함평 다이내스티 컨트리 클럽

호남제일 음식문화를 선도하는 아리랑하우스의 여름특선메뉴

삼계탕 전복삼계탕 굴비정식

## 역시 금수장호텔 아리랑하우스입니다!

건강한 우리 음식으로 즐거운 만남을~

중·소 규모의 세미나도 아리랑하우스의 한정식으로 더욱 정성껏 모시겠습니다.

**금수장호텔·아리랑하우스**  
 예약문의 (062) 525 - 2111 (계림동 흥플러스 건너편)

착한 가격의 편안한 객실, 세미나, 회식 등 각종 모임을 위한 연회장, 접객실, 편리한 주차, 성공적인 만남을 위한 커피숍

부담없는 가격의 내 집 처럼 편안한 객실 | 30년 전통 광주음식명가 한정식 아리랑하우스 | 각종 모임을 위한 대소 연회장 | 광주 와인 문화1번지 모리나리 | 맞춤형 출장도시락

www.geumsoojang.com